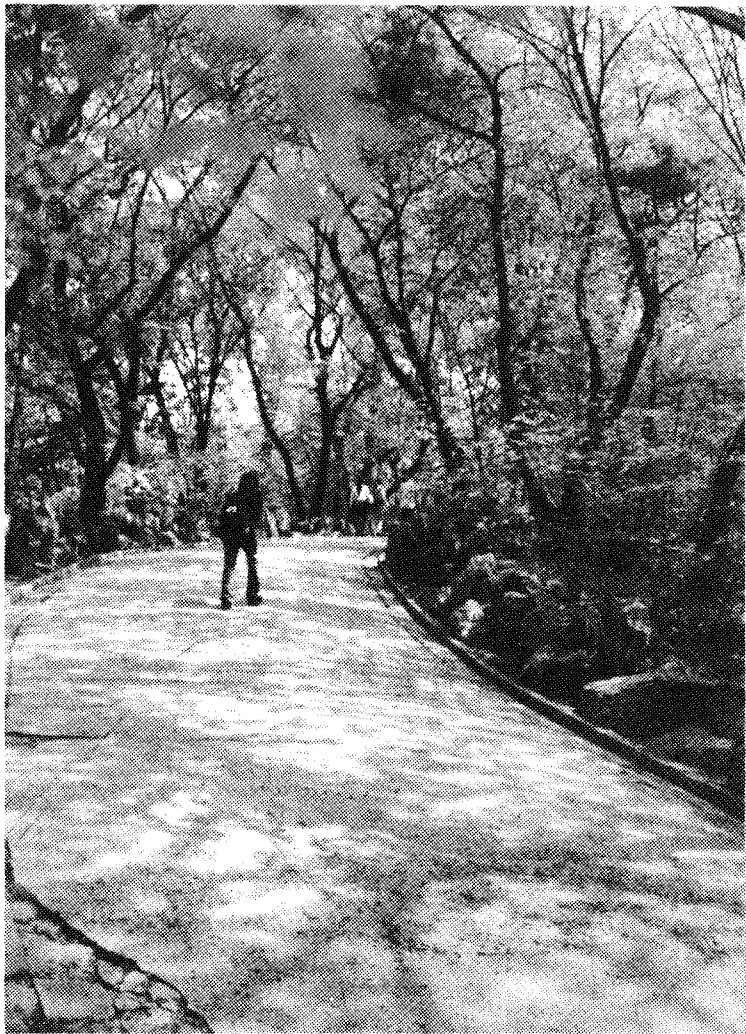


□ 장애인 특별전형 시행과 폐지를 진단한다

그들을 위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학교...제반시설 부족으로 특례입학제도 폐지

제반시설 부족은 부차적 문제일 뿐...장애학생



▲일반학생도 오르기 힘든 길을 오늘도 그들은 묵묵히 걷는다

얼마전 우리신문 여론면에 한 장애학생의 글이 실렸다. 운이 좋게도(?) 장애인 특례입학이라는 혜택을 받아 96학년도에 우리학교의 신입생이 된 한 여학생이 2년만에 자취를 감춰버린 그 고마운 제도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내린 학교측에 조심스럽게 쏟아놓는 호소문이었다.

펜을 잡는 것조차 힘이 들고 힘들어 잠은 펜으로 한 자 한 자 써 내려가지만 그보다 몇배로 고통스러운 그 여학생이 우리에게 쓴 짧은 글은 그 글을 쓰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였으며 무엇보다 용기를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우리학교는 지난 1995학년도 입시전형에 장애인 특별전형제도를 혁신적으로 도입, 시행하였다.

장애인에겐 일반인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시행한 이 제도는 그러나 그 두번째 시행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당초 장애인을 위한 제반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가 학교 지형상 장애인의 거동이 어려운 곳이 많아 그동안 장애인협회나 그 외 몇몇 장애학생들에게 개선탐색을 받아야 했던 학교측은 이에 과감히 제도 시행을 포기한 것이다.

장애인 전형제도가 폐지되었다

시행 2년만에

학교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장애인들이 좋은 기회를 주고자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 것 같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음엔 웬지 대하기가 낯설었던 그들. 어색한 몸동작과 편치 않은 듯한 표정. 그들이 가파른 고개를 오를 때면 우린 그저 '힘들겠구나'하는 생각이 전부였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생각은 그들의 손을 잡게 했고 가파른 언덕은 상쾌한 내리막길로 느껴지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손,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편지자)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된 장애인 특별전형제도. 장애인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며 가면서까지 제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이번 결정.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는 없어진 것인가?

에당초 부작용을 예측해 제도 시행 자체를 보류했다면 피해자는 없다. 그러나 2년간 버텨온 받아온 장애학생들. 그들은 이제 설 곳이 없다.

제 2의 '혈떡고개'라 일컬어지는 복지회관 길을 따라 학생식당에 도착하면 재빠르게 줄어드는 줄에 보조를 맞추느라 식사때가 전쟁같은 그들. 그러나 그들은 불만을 말하지 않는다. 한 장애학생은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선택한 학교에 불만을 갖는다면 학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라고까지 말한다.

더군다나 올해 3월 총학생회가 학교측에 상정한 학자요구안 중에는 인권복지위원회(인복위)가 건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확대 설치'안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안이 통과될 경우 인복위를 중심으로 각 건물 난간보조대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지시설 설치, 장애인 화장실 설비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제 장애학생들에게 있어 시설면의 어려움이란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 정작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의 '폐지' 그 자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실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 적용으로 입학한 장애학생 대부분의 경우, 현재 우리학교의 제반시설 부족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지 않다. 설령 불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불만과 고통들은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 복지시설 증축 건의도 장애학생 당사자의 건의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오히려

외부 장애인협회나 학생회측의 요구가 더 많고 또 구체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른 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다.

한 학교는 학생회와 수화동아리를 주축으로 간담회 형식의 '열린마당'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조차 장애학생들은 자신의 불편사항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한다.

대학이라는 곳에서 단지 어울려 살고 싶을 뿐이다

이처럼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설 속에 살면서 그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을 쉬쉬하고 사는 장애학생들. 그들이 그와 같이 행동하는 이유는 단 하나.

대학이라는 곳에서, 자칫하면 선천적 혹은 후천적 신체이상으로 경험을 꿈꿀 수조차 없었던 곳에서 단지 어울려 살고 싶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선부르게 한 건의가 이 제도의 존폐를 결정짓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여간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열려가 불행한 결과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그것도 시행 2년만에 말이다.

학교는 하루 속히 이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제반시설 확충은 제도 부활 후 생각해도 늦지가 않다. 학교측의 생각처럼 제반시설 확충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정부의 지원없이 완벽한 시설을 보강하기가 힘들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학교측이 미세한 하나를 위해 커다란 열을 과

감히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제도 폐지 이후 소년소녀가장들을 비롯한 사회 어두운 곳에 교육기회를 배려하는 학교측의 노력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그들과 또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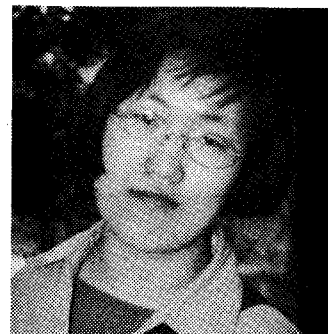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오점을 늘 안고 다니고 그 오점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한 사회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용기. 그 용기의 가치만으로도 장애인 특별전형제도 부활의 타당성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제반시설 확충 후 부활. 그러기엔 그 시간이 너무 길다. 아니 그 기간동안 사그라들 장애인들의 애절한 용기가 아깝다.

(강남이 기자)

□ 장애인 특례입학자 고은영(국문2)양

"적어도 우리에게 유용한 제도"



스물두살 늦은 나이에 대학생이 된 장애학생.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 폐지에 대해 그 누구보다 분개하지만 무어라 소리쳐 호소하기도 힘든 그 학생들 중 한 명을 만나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에 대해 갖는 전반적인 생각들을 들어보았다.

대학진학을 결심했던 계기는? 제가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 것이 공부뿐이었어요. 특히 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국문과를 택하게 되었어요.

대학생활을 누리면서 기뻐했던 점과 힘들었던 점은? 무엇보다 넓은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며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뻐요. 힘들었던 점을 굳이 말하자면 모든 대학생들이 갖는 정신적 고통에 비해 저는 육체적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것 뿐이죠. 특히 식사할 때면 그 고통이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다행히 많은 친구들이 도와주고 있어 늘 감사하고 있어요.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분명 부작용은 존재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 폐지에 대해 느끼는 점은? 폐지 사실을 후배와 신문들 통해 접하게 되었을 때 운이 좋게도 그 혜택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부끄럽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95년, 96년 미흡하나마 시행해 온 것처럼 후배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고 바랄 뿐이에요.

(특별취재반)

□ 타대학 특별전형 제도 및 복지정책 현황

점자판 도서, 음성인식 프로그램 설비운영

1995학년도 서강대를 효시로 점차 그 시행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장애인 특별전형.

기껏해야 제도 시행년수가 2년을 채 넘지 못하는 이 시점에 학내 장애인 복지 확충이란 꼭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금전적·시간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지금 현재 각 학교별로 행해지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형태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그 하나로 장애인 제반시설의 확충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장애인 특별전형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 시행한 서강대의 경우 각 건물 계단의 난간을 보완하고 도서관에 점자판 도서를 구비하는 한편 전산소에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신축 건물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마련하는 등 각종 시설 완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장애인 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장애인 이동이 가장 용이한 길을 표시한 장애인 학교지도도를 제작한 연세대의 경우도 좋은 예이며 이화여대의 경우 장애학생의 차량에 대해서는 유료주차료를 적용시키지 않는 등 여러모로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그 밖에 또다른 복지사업의 형태는 장애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의 자치기구를 결성, 장애인 복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연세대의 '게르니카'는 작년에 구성된 장애학생 동아리로서 학내 장애인 수와 장애의 종류를 자세히 분석하여 장애인 시설에 대한 계획안을 학교측에 상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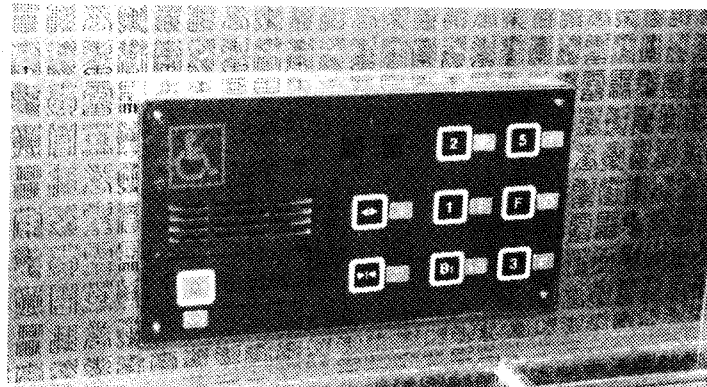
또한 서강대의 경우 수화동아리 '손짓사랑'의 주축로 간담회를 열어 장애학생들이 갖는 애로사항이나 보충되어야 할 점들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서강대 입학관리처의 한 관계자는 "처음엔 장애인 복지라는

것이 난감한 과제였지만 교육공동체의 이념을 바탕으로 두고 학부형 간담회 및 열린 마당에서 듣는 장애인의 고통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 학생 자체적으로 또는 학교 내부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완벽할 때 존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과감히 없애는 것보다 점차 나아지기 위해 개선에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이들 학교들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다.

(특별취재반)



▲서강대 신춘관을 엘리베이터의 점자 버튼

I CAN DO!

PAGODA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신것이 파고다의 특징입니다

http://www.pagodaac.com/

미국인 영어회화

정규영어 회화과정

집중영어 회화과정

영 어

기초 영어회화

유학·진학·취업 영어

일본어

기초 일본어 3개월 완성

동경 일본어 독어/일본어 문법

일본어 회화 (초급 I·II·III)

스크린 영어회화 및 청취

NHK 일본어

교수진원 일본 명문대학 석·박사 출신

NEW 최신 프로그램

통신영어 강좌 (3450원/강좌)

대학입학 영어

전문 프로그램

미국 WISCONSIN 대학반

독어·불어·중국어

스페인어·러시아어

■ 편리한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 - 종로·압구정·강남·신촌 파고다 4개학원 어디서나 원하는 학원의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로 276-0579 (영어전국) 신촌 719-0579 (영어전국) 압구정 516-0579 (영어전국) 강남 553-0579 (영어전국)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
파고다외국어학원

經濟大國 日本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日本の政府와 企業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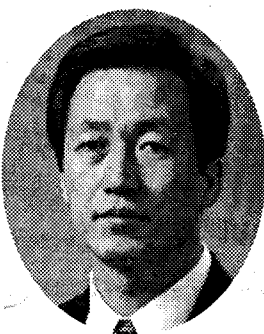
●신국판/342면/값 8,500원

日本株式會社の 정체는?

일본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정부인가 기업인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통상성과 일본 자동차업체 사이의 치열한 게임을 통해 '일본 주식회사'의 정체와 고도성장의 비밀을 파헤친다.

우리는 일본을 알고 있는가?

수수께끼 같고(enigmatic), 이해하기 힘들며(elusive), 정부의 실체가 없는(stateless) 나라, 정보의 블랙홀(information blackhole)로 불리워지는 일본. 식민지 통치를 경험한 세대는 일본에 대한 제한된 경험을 확대해서 이해하고, 젊은 세대는 처음부터 일본을 잘 모르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MIT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企業經營理念』이 있고, 역서로 『競爭戰略』이 있다.

정 몽 준 著

韓國經濟新聞社

출판영업부 : 312-0063, 313-8293 / 출판부 : 3604-556~8